



발행 번호 제2013-15호
2013. 12. 27

나라사랑

발행처: (사)국학원
발행인: 장 영 주
☎ 041-620-6700
www.kookhakwon.org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167-1



CONTENTS

- 1 국학회원 릴레이 인터뷰 1호 ㈜대동상사 김명규 회장
- 3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의 저자
임미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초청 강연회
- 5 천안시, 이승헌 국학원 설립지에 감사패 수여
- 6 경남국학원 2013 얼찾기 범도민운동-민족혼
- 7 서울국학원 "서울시 국학투어"
- 8 대구국학원 '2013 개천절 세미나' 개최
- 9 전북국학원 우리얼찾기 희망콘서트
- 10 국학원에서 열린 의성군 의회 연수회
- 11 충북단양군 "부부인성 1박 2일 힐링캠프"
- 12 공지 2014년 국학회원들을 위한 새해맞이 큰 잔치

낙동강 물기운과 해양산 산기운이 합쳐지는 곳 사하구로부터 국학활동의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김명규 부산시 국학기공연합회장!!!**



부산시 사하구 대동동에 위치한 (주)대동상사는 믿음과 신뢰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철, 분철, 쇠 가루 등을 선별 가공해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인 포항제철, 강신금속 등에 40여년간 납품해오고 있다. (주)대동상사의 40년지기 사장인 김명규 회장은 '나의 이익 보다는 먼저 거래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 그에 맞춰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회사 운영의 철칙이다.

빈틈없는 신용 만점의 회사경영자인 그에게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명산대전을 찾아다니던 그에게 어느 날 표충사 진불암 혜일 스님의 권유로 단학을 알게되었고 국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국학기공으로 원래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밝아지고 난 후 거리에 나가보니 사람

들 얼굴이 칙칙하고 굳은 표정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외국에 나가 봐도 후진국민들조차 웃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생활하는데 우리나라는 직장이나 가정의 갈등이 갈수록 더 만연해지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내 나름대로 이것을 변화시키는데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사하구민들부터 의식이 밝고 환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김 회장이 시작한 것은 웃음과 인사였다. 먼저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주변에 환한 에너지를 전해주는 것이었다. “주위에 자수성가한 CEO들 중에도 중풍환자도 많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경직된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저는 직접 웃음수련, 뇌파진동 등 국학기공을 전해주고, 즐겁게 춤추고 놀면서 아리랑을 부르며 일했던 우리 민족의 문화, 국학을 알려드립니다.” 힘찬 목소리, 누가 봐도 신명이 살아있는 밝은 표정의 김회장이다.



면 안 된다. 낙동강 물기운과 해양산 산기운이 합쳐지는 사하구에서부터 스마일의 의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신이 먼저 스마일 해야 한다. 사하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하자'는 열정적인 연설을 해 자리에 모인 시의장, 국회의원, 구의원, 구민들 모두 감동했다. 그 후 해마다 김 회장을 찾는다고 한다.

또한 김회장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은 국학원에 매달 100만원씩 후원하는 것이다. 국학원을 설립하고, 국학과 국학기공 등을 통해 국학의 정신을 일깨워나가고 있는 일지 이승헌 총장의 큰 뜻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8년째가 되었다.

게다가 동아대학 35회 동문회장을 맡을 때에는 한국인에게 고함 800여권, 힐링소사이어티, 걸음이 날 살려라, 너과 진동 등 3,000여권을 각계각층에 전했으며 그의 스마일 정신의 뿌리인 국학인 홍익인간 철학을 실천해왔다.

수심이 깊고 세계에서 물 맑기로 소문난 포항에서 미네랄과 산소가 풍부한 동해수를 생산하면서 국학의 큰 행사 때마다 2만여 명에게 생수를 협찬하기도 한 김 회장은 앞으로

한편 국학기공연합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는 곳곳에서 국학기공대회를 연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의 정신을 전해왔다. 한번은 사하구 국학기공대회 날 아침, 명상을 하다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고 '물질은 더욱 많아져도 정작 정신이 행복하지 않으

로도 평생 힘닿는 날까지 국학기공으로 되찾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서 깨어난 첫 마음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한다. 우리 민족의 신명이 살아나 모든 이들이 밝고 환해지는 스마일 홍익 세상을 꿈꾸며~~



각종 단체에서 수상한 수많은 상장과 감사패



언제나 어디서나 밝은 얼굴과 환한 미소로 홍익을 실천하고 있다

“아시아에 등장할 또 다른 1등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국학원, 12월 4일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의 저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초청강연회 개최



사단법인 국학원(원장 장영주)은 12월 4일 오전 11시 4층 대강당에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경희대)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임마누엘 교수는 최근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부제 하버드대 박사가 본 한국의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날 강연에는 국학원 설립자이자 최근 2013 IFFSW(‘영성·종교·미래’ 국제영화제)에서 골드어워드 및 감독상, 음악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한 이승헌 글로벌 사이버대 총장을 비롯해 450여 명이 참석

하여 큰 호응을 나타냈다.

동아시아에 주목한 글로벌 인문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임마누엘 교수는 “아시아에 등장할 또 다른 1등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더는 약소국이 아니라 국제사회 주요사안에 대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회가 왔음에도 한국인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폄하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는 인류평화철학 ‘홍익’ 과 ‘선비문화’

그가 발견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정신적 자산으로 건국이념이자 보편적 평화사상인 홍익인간 정신과 실천적 지성인의 문화인 선비문화이다.

임마누엘 교수는 “홍익인간 정신은 인종이나 민족, 종족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인 성격의 개념이며 따라서 다른 나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한국의 건국이념은 그 자체로 인류의 행복과 인간사랑을 표방한다. 한국인은 일찍부터 인류와 사상을 포용하는 정신을 갖고 있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선비문화에 대해 “일본인이 강점 지배를 위해 조작한 논리에서 벗어나 선비문화를 바로 보아야 하며, 한국의 선비문화는 전 세계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큰 잠재성을 안고 있다.” 고 했다.

임마누엘 교수는 최근 한류에 대해서도 “한류는 K-POP, 음식 등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형태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며 물질적 한류가 아닌 정신적 한류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직지(직지심체요절)’를 만들 만큼 뛰어났지만 세계 표준이 되지 못했고 독일이 표준이 되었다. 이는 비극이다.

현재 네이버나 싸이월드도 국내만 집중하고 국제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내가 공부한 예일대에도 한국학이 개설되지 않아 접하기 어려웠다.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에 관심을 갖는 동료 교수도 있지만 외국인에 맞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다" 며 세계표준이 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임마누엘 교수는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창조는 전통적 기초 없이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뛰어난 전문성과 기술력 바탕에 인간적이고 5천년을 이어온 우수한 정신적 가치의 융합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과거에 있다." 며 대한민국이 21세기 르네상스의 꽃을 피울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강연 전 국학원 전시관을 소개받은 것에 대해 임마누엘 교수는 "외국인으로서 단군조선에 대해 잘 몰랐지만 열심히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한국의 전

통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있으니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싶다."고 했다.

국학원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강연을 마치고 참석자들의 요청으로 저자 사인회가 열려 참석자들은 장사진을 이루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독자들과 함께 한 출판사인회



천안시, 이승헌 국학원 설립자에 감사패 수여

민족 선도문화 복원과 시민 건강증진 기여한 공로 높이 인정해

세계적인 명사가지자 국학원 설립자인 이승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충남 천안시로부터 우리민족 고유의 선도문화를 복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1월 21일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승헌 총장은 고향인 천안시에 우리의 열인 홍익인간 정신을 연구 및 교육하는 국학원을 설립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인 선도문화를 복원하고, 시민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노력해왔다.

또한 우리고유의 전통 수련법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천안시 승격 50주년 및 천안방문의 해를 맞아 천안을 널리 알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천안이 낳은 세계적인 교육자인 이승헌 총장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며 홍익인간 철학을 국학과 뇌교육으로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면서 천안시민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작은 나에서 큰 나로의 여행—민족혼 교육

“1월에 100명, 11월에 200명 민족정신광복군”탄생하다! 경남국학원의 2013 일찾기 범도민운동

경남국학원은 올 초 1월, 2013년 한해를 민족혼과 일찾기 범도민운동을 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천안국학원에 100여명을 모아 민족혼 교육을 진행했었다. 이어 11월 24일에는 경남 진해 하나로 마트 2층 회의장에서 시민,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민족혼 교육을 실시했다.

이미 10월말에 경남지역 내 300여명의 국학원 활동가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천안국학원에서 1박2일 동안 민족의 얼을 체험하는 워크샵을 갖고 난 후 깨어난 열정으로 뜨거운 의지로 11월 민족혼 교육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한다. 준비를 하면서 전체 활동가들의 신명이 살아나고, 혼이 뜨겁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었다고

천안에서 멀리 진해까지 교육을 위해 달려간 한승용 트레이너는 처음 경남에서 비전을 얘기할 때, 요즘 50명도 모으기 쉽지 않은데 ‘과연 200명이 모일 수 있을까’생각했는데 진짜 해낸 것을 보며 경남의 무

서운 힘에 놀랐다면 2014년도 경남의 비전이 어떻게 이어질지 더욱 기대된다고 한다.

2014년에는 모든 지역 국학원에서 민족혼의 불길이 더욱 크게 일어날 것을 상상하니 벌써 기쁘고, 절로 신이나는 것 같다.



올해 여름, 경남국학원 임원진들과 함께
“경남국학원 파이팅!!!”

2013년 서울국학원이 야심차게 운영한

국학회원들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 “서울시 국학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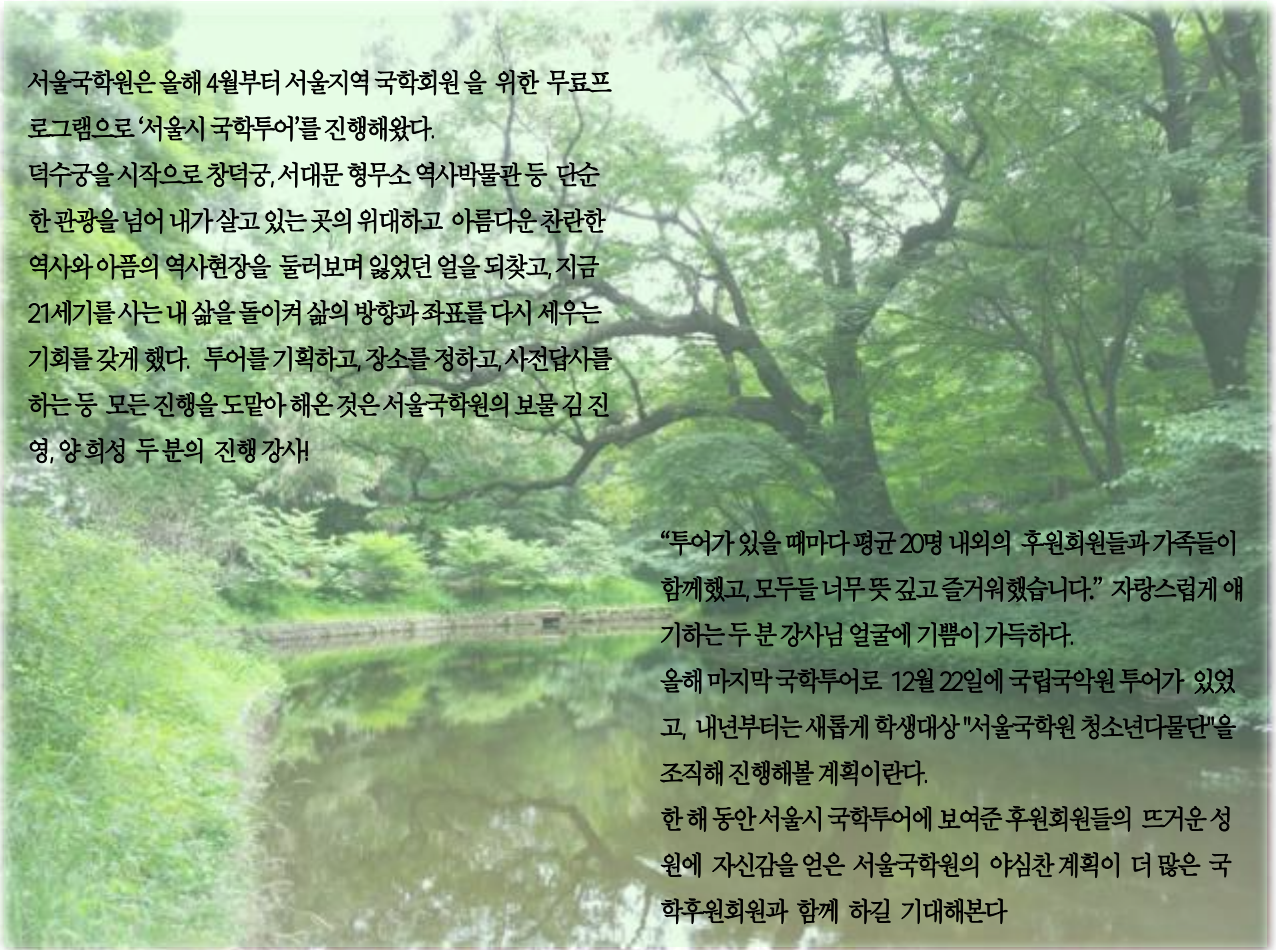
서울국학원은 올해 4월부터 서울지역 국학회원을 위한 무료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국학투어’를 진행해왔다.

덕수궁을 시작으로 창덕궁,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 등 단순한 관광을 넘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찬란한 역사와 이품의 역사현장을 둘러보며 잃었던 열을 되찾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내 삶을 돌이켜 삶의 방향과 좌표를 다시 세우는 기회를 갖게 했다. 투어를 기획하고, 장소를 정하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모든 진행을 도맡아 해온 것은 서울국학원의 보물 김진영, 양희성 두분의 진행강사

“투어가 있을 때마다 평균 20명 내외의 후원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했고, 모두들 너무 뜻 깊고 즐거워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두 분 강사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다.

올해 마지막 국학투어로 12월 22일에 국립국악원 투어가 있었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학생대상 "서울국학원 청소년다물단"을 조직해 진행해볼 계획이란다.

한 해 동안 서울시 국학투어에 보여준 후원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에 자신감을 얻은 서울국학원의 야심찬 계획이 더 많은 국학후원회원과 함께 하길 기대해본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 투어



창덕궁 투어



장영주 국학원장이 대구국학원 국학강사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애국가'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팔공산 천제단의 새로운 조명- '2013년 개천절 세미나'

대구국학원, 한민족의 정신문화를 다룬 세미나 개최

대구국학원은 지난 11월 28일 대구국학원 교육원에서 원암 장영주 국학원장을 초청하여 음력개천절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학강사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5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뛰어난 정신적 철학이 담긴 태극기와 천부경을 보다 가까이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영주 국학원장은 태극기 안 '태극'과 '건곤감리'를 하나하나 쉽게 풀이하였다. 전해영 (48세) 강사는 "태극기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겼는지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니 이제는 틀리지 않고 태극기를 그릴 수 있겠다. 다른 나라 국기들이 상징하는 의미와 비교하니 우주자연의 원리를 담은 우리 태극기가 더욱 자랑스롭다."고 했다.

또한 한민족 최고의 정신적 유산인 '천부경'에 대해 장영주 원장은 우리 고유의 숫자 '하나 둘 셋 넷'을 통해 설명했다. 천부경 81자 속에 우주자연의 섭리와 천지인 사상을 담은 선조의 뛰어난 지혜에 참석자들은 감탄했다.

이날 참석한 고등학교 학생도 "처음엔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태

극기와 천부경이 쉽게 와 닿았고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2003년부터 대구 팔공산 천제단 문화복원사업, 1998년부터 개천행사를 진행한 대구국학원은 음력개천절을 기념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으며, 대구광역시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대구 팔공산에서 천제를 지내는 모습

"내 안의 흥익DNA를 깨워라"

전북국학원 우리열찾기 희망콘서트

우리열찾기 중심 활동을 하는 전북국학원은 지난 11월 23일(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우리열찾기 희망콘서트'를 열었다.

오프닝 공연으로 안중근 의사가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 결의를 한 '단지동맹'과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표현한 단막극 공연을 했다.

공연배우들은 우리열사랑회 회원들로 전북국학원에 모여 매일 연습한 결과 관중들에게 그 역사적 현장에 선 것과 같은 뜨거운 감동과 항일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그려냈다.

이어 국학원 이병택 교육이사의 민족의 수난사와 평화롭고 찬란했던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생동감 있는 강연이 이어졌다.

이 이사는 우리민족이 흥익인간 이화세계의 건국이념으로 나라를 세운 한민족의 시원과 동아시아의 중심으로서 고조선시대의 찬란했던 문명에 대해 강연했다.

민족의 수난사에서는 삼국시대 이후 우리민족의 험난한 역사와 수난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온 민족의 기상과 정신을 전했다.

콘서트의 대미는 풍류도 예술단(선풍 신현욱 대표이사)의 사물놀이 등 신명나는 난타공연으로 장식되었다. 힘찬 북소리 속에 콘서트 참가자들도 하나 되어 춤과 노래로 신나는 한 판을 체험하였다.

(주)풍류도는 흥익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울려'를 통해 두뇌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문화예술기업이다.

전북국학원 김순애 사무처장은 "전북국학원의 우리열사랑회 회원들이 마련한 이번 콘서트는 흥겨운 공연과 알기 쉽고 감동적인 강연이 어우러진 신명나는 한 판"이라며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의 열이 깨어나게 하고자 마련했다."

참석한 시민들이 큰 호응을 보내주고 관객이 아니라 무대에 주인공과 같이 참여해 주어 감사하다."고 했다.





‘의성문소신문’에 게재된 1박 2일 의성군의회 연수 소식

의성군 의회 1박 2일간 국학원에서 직무교육 받아

의성군의회 의원들이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국학원에서 직무 연수를 받았다. 12명의 의원들은 알차게 짜여진 프로그램에 밝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장영주 국학원장이 '우리 문화, 역사, 철학 - 의성 조문국의 역사'에 대해 수준 높은 열강으로 많은 감동을 주고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부터 '지방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 과정, 좌성민 강사의 '생활 속 스트레스 관리'와 이고은 강사의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 기법'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장영주 국학원장의 '우리 역사, 문화, 철학-의성 조문국의 역사' 강의(위)



의성군의회 의원들이 국학원 교육장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모습



충북 단양군 “부부인성 1박2일 힐링캠프”

천안국학원에서는 12월 5일~6일까지 1박 2일 양일간 충북 단양군 11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인성 힐링캠프가 열렸다. 충북 단양군 여성발전협의회 심옥화 회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캠프는 정명길, 안정민 트레이너의 재미난 레크레이션과 체조, 활공, 발마사지, 배우자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편지쓰기, 눈 마주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며 서로를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다.

힐링 패밀리 비전을 함께 쓰고, 인증 샷을 찍으며 서로가 성장을 위한 영혼의 파트너임을 되새겼다. “서로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그동안 서로 잊고 지내 온 느낌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가슴에만 품고 표현하지 못했던 애뜻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값진 시



간이었음을 얘기하는 단양군 11쌍의 부부들.. 못내 아쉬운 마음들을 뒤로하며 단양군의 다른 부부들에게 이 부부인성 힐링 캠프를 적극 추천하리라 약속했다.



2014년 국학회원들을 위한 새해맞이 큰 잔치

대망의 4347 갑오년 청마의 해 국학가족 송구영신 한마당

- . 언 제 : 4346년 12월 31일 21시
- . 어디서 : 선인방 / 한민족역사문화공원
- . 대 상 : 국학회원 및 가족
- . 참가비 : 무료
- . 세부일정
 - 21:00 신명나는 한바탕 놀이마당 - 선인방
(노래자랑, 장기자랑, 난타 등)
 - 22:00 모닥불 송년파티(군고구마, 가래떡)
- 지구공원
 - 23:00 새해맞이 천부경수련
 - 24:00 재야의 종 (소원기원 풍등날리기)
- . 참가신청 : 권혜선
041-620-6742
010-2340-1785



사단법인 국학원

